

# 신안군, 2022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 내일부터 신안 자은서 한국조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 호주·홍콩·일본 등 국내·외 철새 전문가 150여명 참석

신안군은 오는 9월 29일 신안 자은에서 한국조류학회와 공동으로 '2022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사무국 대표 Doug Watkins(호주)와 담당관 Vivian Fu(홍콩), 일본 야생조류협회 연구원 Simba Chan(홍콩), 일본 바닷새복원그룹 연구원 Kuniko Otsuki(일본), 호주 바닷새그룹 연구원 김유나 박사, 미국 오리건주립대 연구원 김한규 박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조류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신안갯벌, 철새서식지 지속 가능한 보전"이라는 주제로 해외 사례를 공

유하는 자리가 될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주관해 왔으며, 올해로 11회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새개체군의 지속적인 감소와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신안군은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 종 중 400종 이상이 신안군을 통과하는 지리적 요

충지로 갯벌을 이용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압해도갯벌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서식지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신안갯벌 1,100㎢ 전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한번째 이어오고 있는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철새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이 사람과 철새, 자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암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군정 혁신 위한 청사진 논의

영암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우승회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영암군의 군정 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실과소장과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군정 주요업무의 청사진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 120건, 국도비 및 공모사업 23건, 신규시책 48건, 주요업무 250건, 총 441건의 2023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군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협업을 통한 상승효과 유도방안 및 행정서비스 군민 만족도 증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승회 군수는 보고회를 마치며 "그동안 군공직자들에게 낯은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해 왔는데, 보고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직자들이 고민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보완·개선 사항을 잘 반영하여 군민들이 민선8기 영암군에 기대하고 있는 혁신의 열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기관별 하반기 사업계획 공유·의견 교류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영광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사)전남 고용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과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관별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교류 및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영광군, 광주관광고용센터, 전남광역세일센터 등 7개 취업지원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지역 일자리 방향 설정 및 신규 사업 발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영광군 지역 맞춤형 고용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요리교실 '성황'

### 가정·교육현장 쌀 가공품 보급 실천

무안군은 최근 학부모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쌀을 이용한 요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미니케이크, 초코쿠키 등 쌀 베이킹 요리를 만들어 봄으로써 쌀은 밥이나 떡으로만 먹는다는 인식을 바꾸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초 2회로 예정됐던 실습교육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추가교육까지 총 3회로 진행됐으며, 지루한 이론교육보다는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뮤직플레이, 스승과 제자 하모니로 축제 서막

### 내일 박방금·김준수, 안애란·서진실(엑스), 김순자·양지은 개막 공연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깃바위문화터에서 열리는 목포뮤직플레이가 스승과 제자의 하모니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 목포는 유명가수를 다수 배출했는데 목포뮤직플레이 무대에 오르는 스승은 박방금(전남도 무형문화제 제29-4호), 안애란(전남도 무형문화제 제29-2호), 김순자(전남도 무형문화제 제29-5호) 등 3명으로 모두 현재 목포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방금 명창은 송가인(미스트롯 1위)·김준수(풍류대장 2위), 안애란 명창은 오정해·박

애리·서진실(엑스)의, 김순자 명창은 양지은(미스트롯 1위)의 스승이다. 시는 뮤직플레이 개막행사에서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출연하는 공연을 마련해 목포가 1930년대 이난영 여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있음을 알릴 방침이다. 박방금 명창과 김준수는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과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안애란 명창과 서진실은 '진도아리랑'을, 김순자 명창과 양지은은 '금강산 타령'을 각각 함께 들려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박차'

함평군이 주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의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함평천을 대상지로 지난 23일 47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치수, 생태, 경관 등 다양한 하천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천 인근 생태대지공원을 확충해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3년 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